

치 아와 심 미

예 치과 의원
박 인 출

목 차

- I. 美란 무엇인가?
- II. 얼굴의 美
- III. 한국 평균인과 미인의 비교
- IV. 치열교정 및 안면골 수술을 통한 얼굴의 변화

I. 美란 무엇인가?

인류는 태고 때부터 美에 대하여 논쟁을 해왔으며 美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美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심리학적, 진화론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외모의 신비스럽고 거대한 효과를 찾아내는 과정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외모의 美란 성(性)에 의한 구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어떠한 개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일 특징이라 한다.

좋은 외모의 이점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한다. 즉, 귀여운 사람들이 시선을 더 많이 받는다. 외모의 이점은 학교 때에도 지속되어 선생님들은 외모가 좋은 학생들을 실제보다 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료들도 그들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기에도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도약의 기회가 많아지며 이성과 교제하는 데에도 월등한 우위를 갖게 된다.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법정외판결에서도 유리하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정직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 지하철역에서 떨어진 사람이 도움을 받는 확률은 떨어진 사람의 외모에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좋은 외모의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을 많이 끄는 반면에, 연구에 의하면 좋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며 입사, 승진, 보수 등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좋지 못한 외모를 갖고 있는 10대들은 좋은 외모를 갖고 있는 동료들에 비해 혈압이 높고 학업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외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표지를 보고서 책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축적했다고 한다. 또한 타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에 의해 우리가 자신에 대한 느낌과 세상을 보는 견해가 영향을 받는다는 피드백 작용(Feedback mec-

hanism)에 대한 연구도 있다.

우리가 사람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작용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강하다.

인류에 있어서는 생(生)을 존속하고 다음 세대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 있다. 이 본능적인 감각을 美라 부른다. 美에 대한 생각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존속하기 위한 본능이며 또한 진화하여 가기 위한 원동력이었다.

美의 감각은 사람의 진화과정과 함께 발달하였으며 진화과정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美에 대한 감각에 혼란이 생기면 그 생물의 존속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II. 얼굴의 美

1. 얼굴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는, 척추동물의 두부(頭部) 전면에 있는 이마로부터 하악(아래턱)에 걸친 귀 사이의 부분을 얼굴이라 정의하고 있다.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에 있어서도 두부에 눈, 입 등이 모여 있고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얼굴이라 부르고 있지만 척추동물의 얼굴과는 기원이 다르므로 의미도 다르다. 개나 말 등 그들의 세계에서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세계에서는 얼굴을 단순히 신체의 일부로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Kretchmer는 “얼굴은 사람의 체질을 반영하는 명함과 같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색인’으로 사용된다. 얼굴은 체질 및 정신의 형태를 알 수 있는 표지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의 부분이다.

일상의 언어 중에서도 얼굴은 흔히 그 사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인 Personality(영어), Personalichkeit(독어), Personnalité(불어) 등의 어원인 PERSONA는 라틴어의 면(面), 안(顔)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등 동양에서도 면접, 면회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은 그 사람 자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왜 얼굴에 강한 관심이 쏠리는가?

신체의 일부인 얼굴에 강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인간의 생명현상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들이 두부나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신체의 모든 명령을 다루는 두개에는 강한 관심이 일고 있지 않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두개의 형태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관심의 대상은 두개의 크기보다는 두개 표면의 만곡이나 움기로써 사람의 성격 혹은 능력을 알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얼굴을 생명현상의 중추라는 의미로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상으로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

Carrel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얼굴 모습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 그것은 점점 확실하게 되어 인간으로서 개인이 지니는 전체적인 감정, 욕망, 희망 등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간판처럼 된다. 얼굴은 정신활동보다 훨씬 깊은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 및 살아온 과거가 투영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얼굴은 인간의 내면을 흡수하면서

연령과 함께 단순히 생명현상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구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부분으로 변화해 간다. 관상학이나 골상학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개인의 성격, 감정,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얼굴의 어느 부분에 큰 관심이 나타나는가?

신체 중에서 얼굴에 강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얼굴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동일한 관심이 쏠리는 것인가? 얼굴의 이미지는 단순히 눈, 코, 입 등 한 구조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나 얼굴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대상은 모든 부분이 균등하지는 않다.

Yubus는 젊은 여자의 얼굴 사진을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눈 운동을 추적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눈과 입에 동시에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눈과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진화와 함께 수반되었던 근육의 분화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유류에 있어서는 비공(鼻孔) 주변의 근육과 이개근(耳介筋)이 인간보다 발달하였지만 그 외 표정근(表情筋)은 비교적 단순하며 분화도 약하다. 이에 비하여 고등영장류, 특히 인간은 눈과 입 주변의 표정근이 발달하였다. 눈 주변은 안륜근(眼輪筋)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입 주변은 언어활동을 담당하는 구근군(口筋群)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발달된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4. 아름다운 얼굴

못생긴 얼굴에 대한 다양한 위로의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못생긴 얼굴이라는 엄연한 구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비율'이 美의 기준이 되어 美에 대한 수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율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美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美는 '매력'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美는 매력의 일부이지, 매력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美라는 감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존재한다. 동물은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특유의 냄새를 발하기도 한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중시하는 관점도 있다. 지성적이며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하거나 외모보다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선호하는 등이 그것이다. 미인이란 원래 형태를 표현하였던 것이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미인의 조건으로 분위기 혹은 자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용모를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5. 미의 연령에 따른 변화

美의식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는 크며 또한 한 개인에 있어서도 생활환경이나 경험에 의하여 美의식은 변화한다. 또한 美의식에 대한 감각은 신체가 발육하는 것과 같이 정신세계의 발달과 더불어 풍부해지며 변화되어 간다.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며 가치관은 연령에 따라 변해 간다. 일본의 한 화장품회사에서 시행한 연구는 흥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0대에는 의복, 신체 등 전신을 의식하고, 20대~30대가 되면 의복, 화장에 관심이 집중

되고 40대에서는 피부에 관심이 가고 50대에서는 정신적인 면으로 의식의 중심이 이동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미에 대한 의식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美지향의 대상이 연령과 함께 변화한다 하더라도 인격형성 이전에 있었던 외모美에 대한 기본적 욕구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6. 시대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제화되며 정보전달의 시간적 제약도 없다. 이러한 대규모, 초고속 매스미디어 속에서 미에 대한 감각도 예전과 달리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화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처럼 한 개인의 생애속에서도 미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변화한다.

현대적 美란, 현재라는 정지된 개념에서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적 감각의 변화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즉, 일반인이 느끼는 현대적 美란 이미 현대의 평균적인 것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예견하는 미의식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측된 美는 우리들의 눈으로써 확인이 가능한 시간대의 美이며 이 시간대를 훨씬 뛰어넘는 미의식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7.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의미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초의 행위는 화장이었다. 화장의 기원은 4~5년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인간생활에 필수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류에 있어 현대인의 특징인 턱이 출현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화장행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 특유의 문화행위라 할 수 있다.

같은 의미로써 신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얼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의학적 행위인 성형외과술은 이미 천년 이상 전부터 행해졌었다.

얼굴 형태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의료행위로서 치열교정을 들 수 있다. 치열교정은 옆 얼굴의 균형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Ⅲ. 한국 평균인과 미인의 비교

1. 美人은 평균치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美人의식과 평균적 한국인의 얼굴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美人은 평균치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미의식이라는 것이 이미 현대를 넘어서서 미래의 예측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용진 교수도 한국의 평균인과 미인을 비교한 연구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인의 미의식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장년층에서는 전통적 미인상을, 젊은층에서는 서구화된 현대적 미인상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2. 한국 평균인과 미인의 비교

필자는 한국의 평균인과 미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인과 미인을 대상으로 한 두개 안면

부 측모 방사선 계측 연구논문 2편을 이용하였다.

한국인 평균인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1983년 18세 한국인 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 미인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 영화배우, 미스리아 등 대중들에 의하여 미인이라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강구한 氏의 연구를 이용하였다.

그 연구의 비교결과 한국 평균인과 미인의 두드러진 차이를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그림 1)

첫째, 평균인이 미인에 비하여 안면부 전면이 더 볼록한 형이었다. 즉, 미인에서는 옆얼굴이 직선형에 가까운 형태인데 비하여 평균인에서는 안면부 전면의 중앙부가 약간 돌출되어 있는 볼록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평균인에서는 미인에 비하여 앞니가 돌출되어 있었다. 셋째, 평균인에서는 입술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데 비하여 미인에서는 입술이 직선형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얼굴 美의식은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인관을 바탕으로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들의 얼굴은 평균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미래형 美人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송세진 氏는 그의 논문 <한국 젊은이의 안면 미 선호경향>에서 옆얼굴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얼굴 美의식을 기술하였다. 그는 54형태의 측면 얼굴 실루엣을 실험자를 하여 대학생 861명을 대상으로 측모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되는 측면 얼굴모습은 한국 평균인보다는 미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술이 심미선을 기준으로 후방에 위치하는 측모를 선호하는 것은 가장 공통성이 강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인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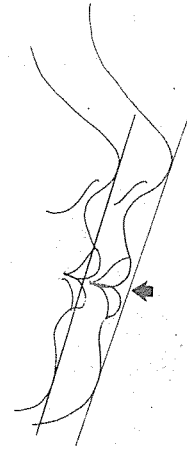


그림 1. 좌측 : 한국인 평균 얼굴의 측모
우측 : 한국 미인 얼굴의 측모



그림 2.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상적 측모



그림 3. 94년도 미스코리아

美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끌고 있다.(그림 2, 3)

3. 한국인과 타 인종간의 비교

필자는 두개 안면부 측모 방사선 계측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얼굴을 일본인, 중국인, 흑인, 백인과 비교하였다.

한국인은 필자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4인종에 대하여는 각기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두개 안면부 골격 전면부의 만곡도는 흑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백인순이었다. 둘째, 두개 안면부 골격의 수직적 길이는 흑인,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백인순이었다. 셋째, 앞니이 돌출도는 흑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백인순이었다. 넷째, 입술의 돌출도는 흑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백인순이었다.

동양인의 두개 안면부 골격구조는 흑인과 백인의 중간형태이며 한국인은 동양 3인종 중에는 서구인과 가장 유사한 골격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치열교정 및 안면골 수술을 통한 얼굴의 변화

치열교정은 성형외과와 함께 얼굴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치열교정은 주로 치아의 아름다움 추구 때문에 일반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얼굴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얼굴모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열교정을 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코와 턱을 연결하는 옆얼굴 모습에 앞니와 잇몸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측모가 한국인의 美의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얼굴 美의 개선에 있어서 치열교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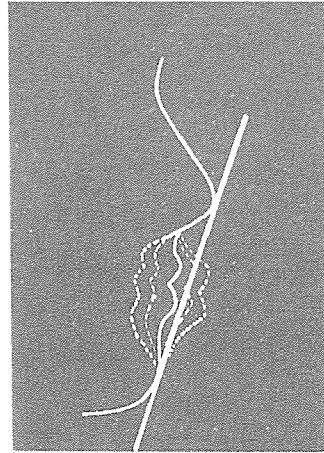


그림 4.

입지는 예전에 비하여 훨씬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예를 들어, 앞니가 돌출되면 코와 턱 사이에서 입술이 밀려서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얼굴 모습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떠한 성형수술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치열교정에 의하여 돌출된 앞니를 뒤로 밀어 넣게 되면 입술이 뒤로 들어가게 되어 상대적으로 코와 턱이 높아 보이게 되는 등 美人형의 측면 얼굴에 가깝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 추구 목적의 치열교정은 한국인의 美의식과 연관되어 앞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안면골 구조의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치열교정과 안면골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악골(아래 턱)이나 상악골에 수술을 시행하나 두개골부에 심한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두개골부에도 수술을 하게 된다.

치열교정이나 안면골 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설문 조사를 통한 치료 전후의 심리변화를 보면 치료후 개선된 얼굴에 의해 자긍심이 높아지고, 타인들로부터 호의적

인 반응을 받는 등 여러 긍정적 요소들로 인하여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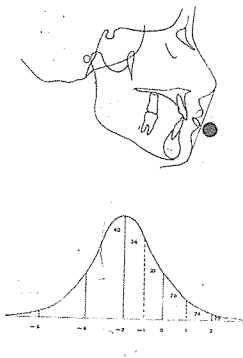
필자는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얼굴모습을 개선할 때 얼굴모습의 개선을 더욱 잘 예측하고 치료후 변화를 더욱 객관화하기 위하여 '안모 미용지수'(PBI)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담당의사와 환자 사이에 얼굴변화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으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림 6)



그림 5. 좌측 : 치열 교정 전
우측 : 치열 교정 후
PBI : 치료전 55 → 치료후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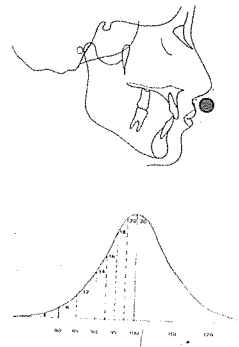
1. Lower lip to E-plane

The distance from the lower lip to Esthetic 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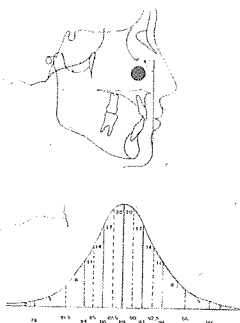
2. Nasolabial angle

The angle formed by the intersection of a line originating at Sn tangent to the mean of the lower border of the nose, and a line from Sn to Ls



3. SOFT TISSUE FACIAL ANGLE

The angle formed by a line drawn from soft tissue nasion (the point where S-N line crosses the soft tissue profile) to the soft tissue chin (the point overlying the hard tissue superposition of Hicketts) measured to FH plane.



4. NOSE PROMINENCE

The distance from the nose tip to the line perpendicular to FH plane and running tangent to the vermilion border of the upper lip and the depth of the incursion of the upper lip to th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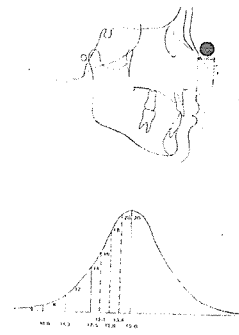


그림 6. PBI(안모 미용 지수)를 구성하는 4요소